

해 외 낙 농 소 식



조 석 진
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국제유제품시장 동향

세계 유제품시장 강력한 역풍에 직면

지난 3년간 세계 유제품무역은 몇 가지 큰 시련에 직면해 왔다. 그 가운데 러시아의 EU산 유제품에 대한 금수조치, 중국의 유제품 소비침체, 산유국의 낮은 유가(油價)로 인한 유제품에 대한 수요침체, 미 달러화의 강세에 따른 수입수요의 감소 등이 그것이다. 그런 가운데 2016년 4월부터 EU의 쿼터폐지에 따른 생산증가는 상당기간 국제시장의 유제품가격하락을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같은 불확실요인들 중 어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러시아의 EU산 유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는 적어도 2017년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 외에 중국의 유제품수요는 과거에 비해 증가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될 전망이

며, 유가(油價) 또한 배럴당 50달러 수준에 머무르는 가운데 미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제시장의 유제품무역은 1인당 수요 증가보다는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에 국한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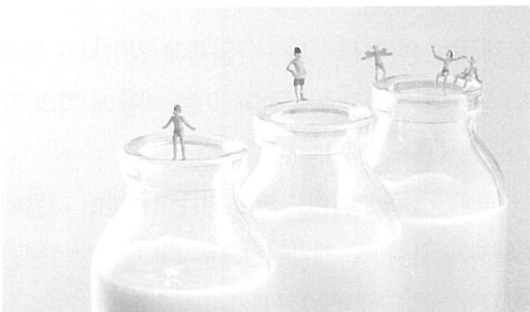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요인

그런 가운데 다행히 뉴질랜드는 토지자원의 제약으로 생산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EU는 쿼터폐지 이후 생산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수요증가와 달러강세로 수출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시장의

유제품무역은 전 세계적인 규모라기보다는 주로 자유무역협정결과에 따라 지역 내의 협정국 상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아시아로, 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미국의 선거결과, 이미 타결된 무역협상의 파기 또는 재협상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후의 전망

3년 전의 국제유제품시장에 대한 무역전망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2015년의 국제시장의 유제품 교역량은 2014년 대비 0.3%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금후 3년간 유제품 교역량은, 미 달러화강세 및 러시아의 금수조치, 낮은 유가(油價) 및 중국의 소비위축으로 근소하게나마 감소할 전망이다. 금후 중국의 유제품 소비는 지금까지와 달리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행할 전망이다. 이는 국제시장의 가격등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이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전 세계적인 수요침체기에는 수출증가를 압박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 달러화의 강세와 미국 내 수요증가로 미국의 국제시장에 대한 유제품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미 달러화의 강세영향이 조금이라도 생산자수취가격에 전가될 경우는, 환율요인에 의해 타 수출지역에 있어서의 우유생산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토지자원의 제약으로 생산확대가 어려우며, EU는 쿼터폐지 이후 생산이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새로운 토지수요나 생산인프라 및 유가공을 위한 신규 투자를 요하는 전략적인 생산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거기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유제품무역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불확실한 러시아와의 관계, 중동지역 및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영국의 브렉시트 및 금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이들 모두가 국제시장의 유제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World Dairy Map 2016』 Rabo Bank(2016.11)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일본 유가결정 구조

■ 낙농가와 조합조직의 구조

낙농가로부터 집유한 원유는 어떻게 거래될까?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우선 그 지역의 지정단체에 의해 집유된 후 지정단체는 그 지역의 여러 유업체에 원유를 판매하며, 이를 「일원집유 다원판매(一元集乳 多元販賣)」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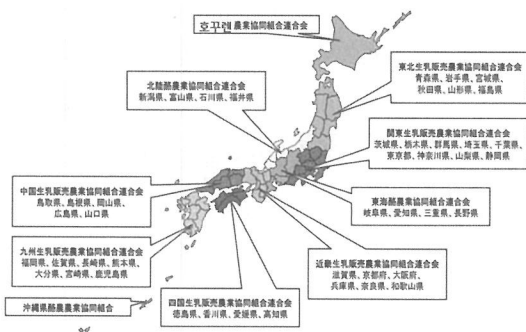
낙농가의 대부분은 농협 등 조합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며, 농협은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의 농협연합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연합회는 다시 전국에 걸쳐 10개 블록(그림 1 참조)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10개 블록을 형성하는 지정단체는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잠정조치법」에 의거, 농림수산 대신 또는 각 현의 지사로부터 「지정생산자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유업체는 이들

지정단체와 원유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정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생산자는 유업체와 직접 원유거래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낙농관련 보조정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용도별 원유거래란?

우유·유제품의 원료인 원유가격을 '유가(乳價)'라 한다. 유가결정은 원유가 저장성이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국가정책상 특유의 가격구조를 지닌다. 즉, 유가는 일반적으로 음용유용(마시는 우유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유) 또는 가공용(버터, 분유, 치즈 등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 등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용도별거래(표 1 참조)」라 하며, 유가는 이처럼 '용도별로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함'과 아울러 '결정된 용도에 따라 유제품을 생산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우유, 버터, 치즈 등 용도가 다른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업체에 있어서는 복수의 용도별 유가가 발생하며, 이들 비율에 따라 유가도 변화하게 된다.

거래가격을 포함한 거래조건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통상 1년간 동일가격에 의해 원유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림 1〉 일본의 연합회 블록

출처: 중앙농회의

〈표 1〉 용도별 거래의 예

		7월	8월
유업체 반입량(A)		1,000kg	1,000kg
음용유	유가(B)	100엔/kg	100엔/kg
	처리량(C)	900kg	700kg
	유대(D)=(B)×(C)	90,000엔	70,000엔
가공유	유가(E)	70엔/kg	70엔/kg
	처리량(F)	100kg	300kg
	유대(G)=(E)×(F)	7,000엔	21,000엔
합계유대 (H)=(D)+(G)		97,000엔	91,000엔
평균유대 (I)=(H)/(A)		97엔/kg	91엔/kg

출처: 일본 유업협회

■ 유가형성의 구조


안정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유가는 유업체와 생산자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합의형성과정을 「유가교섭」이라 하며, 이는 원유수급상황, 시장동향 및 경제환경, 유업체 및 낙농가의 경영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진다. 이같은 환경은 유업체와 생산자단체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적으로 합의된 유가는 거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 전반적으로는 업계 전체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용도별유가 및 지정단체와의 원유거래 등은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잠정조치법」 등에 규정된 내용, 또는 가공원료유에 대한 보급금(치즈용 원유를 포함), 생크림 등에 대한 보조정책 등 국가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다.



■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

안정된 낙농경영을 위해 보조금제도가 있다. 특정유제품용 원유(가공원료유)의 양은 원유수급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가공원료유생산지역의 낙농경영안정 및 원유의 재생산확보를 위해 국가가 제정한 보조제도의 하나로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가 있다. 종전까지 이 제도는 가공원료유 생산농가의 생산비와 유업체의 지불가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부족지불제도」라 불리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전년도의 보급금에 생산비의 변동률을 곱하여 당해 연도의 보급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또한 보급금의 대상이 되는 원유에 대한 「한도수량」을 설정함으로써 상한이 정해져 있다.

2016년도의 보급금단가를 보면, 가공원료유 1kg당 12.69엔, 한도수량 165만 톤, 치즈용 원유 1kg당 보급금단가는 15.28엔이며, 교부대상수량은 43만 톤이다. 

출처: 일본유업협회, 농림수산성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